

보 도 자 료



*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◆ 홍보팀

(팀장 이지영, 담당 조하나)

Tel : 032-770-8630, 8632

Fax : 032-770-8709

◆ 2019. 6. 17.(월) 배포

◆ 총 4쪽 (본문 2쪽, 붙임 2쪽)

한-노르웨이 북극과학 협력에 박차를 가하다

- 양국 극지 연구기관 간 협력약정 서명·교환 -

□ 극지연구소(소장 윤호일)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2일 오슬로에서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 정부가 마련한 연구기관 협력약정 체결식에 참석하여 노르웨이 극지 연구기관 3곳과 협력약정을 서명·교환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날 서명된 협력약정은 노르웨이 극지연구소(NPI)* 양해각서(MOU, 갱신서명), 난센환경원격탐사센터(NERSC)** 양해각서 부속서(Annex), 비야크네스 기후연구센터(BCCR)*** 양해각서(MOU)로 총 3건이다.

- 기관별 협력약정 주요내용

*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갱신 MOU : 스발바르 환경모니터링, 기후변화, 생물다양성, 고기후복원 등 양 기관 간 극지연구 협업을 위한 연구·운영지원 협력

** 난센환경원격탐사센터 MOU 부속서 : 북극 해빙 원격탐사·예측모델 분야 공동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학술정보·인력교류 등 세부협력 시행

*** 비야크네스 기후연구센터 MOU :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국제 북극해통합동 시조사(SAS) 등 양 기관 간 연구·학술활동 협력과 학문후속세대 양성

- 이번 양국 주요 극지연구 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은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시작된 한-노르웨이 북극과학 협력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성공사례를 축적해옴과 동시에 북극해 현장조사, 위성 원격탐사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확대·강화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.

- 윤호일 소장은 “NPI는 대통령의 이번 ‘오슬로 선언’에도 언급된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극지연구기관으로 연구소와 극지연구 협력센터를 함께 운영해온 바,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연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 기쁘다”면서, “NERSC는 대서양 측 북극해 원격탐사 연구에 오래 진력해왔기 때문에 태평양 측 북극해 연구에 강점이 있는 우리 연구소와의 협업에서 큰 시너지가 예상되며, BCCR은 기후변화의 우수연구기관으로 특히 북극해 전체를 대상으로 변화양상을 사진찍 듯 포착하는 북극해통합동시조사(SAS)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성과창출이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협력약정 체결식 사진 1부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극지연구소 국제협력팀 정지훈 선임행정원(☎ 032-770-8431)이나
홍보팀 조하나 행정원(☎ 032-770-8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노르웨이 극지연구소(NPI) 양해각서 갱신 서명



난센 환경원격탐사센터(NERSC) 양해각서 부속서 서명



비야크네스 기후연구센터(BCCR) 양해각서 체결



서명식 단체 사진